

배우 박도원·장소연 커플 결별 “바쁜 스케줄 때문에...”

배우 박도원, 장소연 커플이 결별했다. 박도원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14일 “두 사람이 서로 바쁜 스케줄로 인해 자주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되면서 최근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도원과 장소연은 영화 ‘곡성’에서 부부로 호흡하며 인연을 맺었다.



박도원 ▶

악녀 다숨, ‘연기돌’의 신나는 모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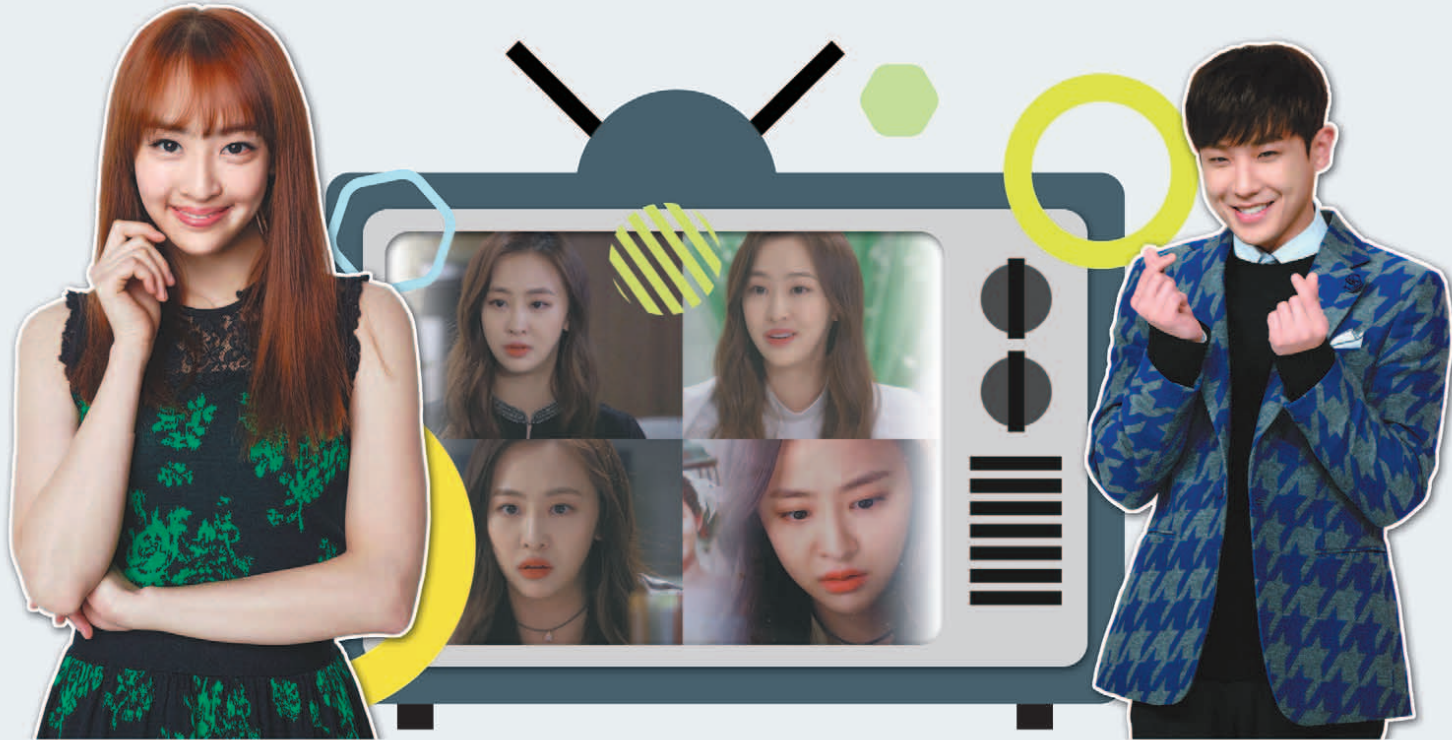
다양한 캐릭터, 그들은 진화중

SBS ‘언니는 살아있다’ 시청률 1위 악플 감수하고 연기 경연 위한 도전 이준 ‘아버지...’서 맞깎나는 발연기

아이돌 그룹 출신의 두 남녀 연기자 주 팔 안방극장에서 나란히 연기변신으로 주목 받고 있다. 주인공은 엠블랙 출신 이준, 씨스타의 김다숨이다. 이준은 KBS 2TV 주말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에서 연기력이 모자라는 아이돌 스타 안중희를 맡아 ‘발연기’를 맛깔스럽게 표현해 호평받고 있다. 김다숨은 SBS 토요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에서 성공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악녀 양달희를 맡았다. 두 사람의 활약 속에 각각의 출연작은 동시시간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케이블채널 tvN ‘갑동이’에서 사이코패스 살인마를 맡아 연기자로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이준은 이후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면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했다. 이번에도 이준은 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드라마 인기를 이끌고 있다.

‘아버지가 이상해’에서 이준이 어설련 연기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비쳐 지지만 시청자들에게는 큰 웃음을 안긴다. 연예인답지 않게 집에서 편하게 지낸다는 설정도 드라마의 재미를 더욱 높여준다. 이준의 활약 속에 ‘아버지가 이상해’는 13일 26.1%(닐슨코리아, 전국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아이돌 출신 연기자의 변신, 그 성공의 모범답안? 씨스타의 다숨(왼쪽 여자)과 엠블랙 출신 이준이 확연한 변화로 출연 드라마의 시청률을 견인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뉴스·사진제공 |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이준은 주말드라마 성격상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폭 넓은 세대에 친근하게 다가가는 성과를 얻고 있다.

드라마 제작사 싸이더스HQ 측은 “이준의 ‘발연기’ 캐릭터 표현력이 높아질수록 시청자의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다”며 “코믹스런 모습뿐 아니라 향후 김영철과 그려낼 부성애에 대해서도 기대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다숨은 ‘악녀’ 캐릭터에 도전해 호평을 받고 있다. 현지 걸그룹 멤버가 시청자들에게 욕을 먹고, 심지어 악플까지 감수해야 할 악녀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

다. 그러나 김다숨의 악녀 연기는 드라마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13일 방송한 SBS ‘언니는 살아있다’ 10회는 12.0%를 기록해 동시시간대 시청률 1위에 올랐다. 특히 10회에서 김다숨이 극중 김주연을 몰아붙이는 장면은 이날 분당 최고시청률(14.2%, 수도권 기준)을 기록했다.

김다숨은 악녀 캐릭터를 두고 고민이 많았지만, 연기자로서의 성장을 위해 역할을 받아들였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걸그룹으로 활동중인 멤버가 악녀를 맡는 것은 쉬

운 결정이 아니었다”면서 “대중이 어떻게 볼까 우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김다숨도 지난달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항상 팬수역할이나 캐디역할만 해서 악녀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악녀 연기는 연기자로서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이돌 출신들이 대개 멋있게 비춰지는 캐릭터를 선호하는 것과 달리 이준과 김다숨은 개성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선택해 향후 행보에 차별화를 기대하게 한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서울환경영화제 ‘블랙리스트 어워드’ 시상

18일 개막하는 제14회 서울환경영화제가 ‘블랙리스트 어워드’를 시상한다. 새 정부 들어 열리는 첫 영화제인 서울환경영화제는 자유로운 표현과 창작을 위한 정책적 ‘환경’도 중요하다고 매년 시상한 에코스타어워드 대신 올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인과 문화예술인에게 ‘블랙리스트 어워드’를 준다. 이날 오후 7시 서울 이화여대 ECC 삼성홀에서 열리는 개막식 겸 ‘블랙리스트 어워드’ 시상식에서는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을 공론화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나쁜 나라’ 등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를 배급한 영화사 시네마달 김일권 대표, 영화 ‘변호인’ 제작자 위더스필름 최재원 대표에게 상을 준다. 서울환경영화제는 24일까지 이화여대 ECC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린다.

버즈 기타리스트 손성희, 비공개 결혼



손성희 부부

그들 버즈의 기타리스트 손성희(35)가 13일 결혼했다. 손성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에서 4년간 만나온

여자친구와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손성희는 앞서 3월 말 버즈 공식 팬 카페에 “이제 가정을 꾸리고 소소한 행복과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 한다”고 결혼 소식을 밝혔다. 연기자 안세하(31)도 14일 낮 12시 30분 서울 압구정동 스카라티움 크루즈378에서 동갑내기 신부와 결혼식을 올렸다. 안세하는 2013년 tvN ‘우와한 너’로 데뷔해 ‘너희들은 포위됐다’, ‘구르미 그린 달빛’ 등에 출연했다.

가수 정진우, 불법도박 혐의 징역 1년

가수 정진우(32)가 불법도박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허미숙)은 불법도박,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진우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34억8600만원 상당의 불법도박을 한 혐의다. 또 2014년 8월 권모씨에게 관련 허위자백을 하게 하는 등 ‘피의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진우는 2004년 영화 ‘내 사랑 싸가지’ OST로 데뷔한 뒤 그룹 엠투엠을 거쳐 2013년 제이투엠으로 활동해 왔다.

국카스텐, H 후지록페스티벌서 공연

록밴드 국카스텐이 7월2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일본 후지록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국카스텐은 마지막 날인 7월30일 공연을 벌인다. 국카스텐의 일본 대형 록 페스티벌 출연은 2012년 서머소닉 이후 두 번째. 1997년 시작해 21회째를 맞는 후지록페스티벌은 전 세계에서 대해 10만 명의 관객이 찾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음악 축제다. 코밀라즈, 에이팩스 트윈, 비코르, 로드 등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올해 후지록페스티벌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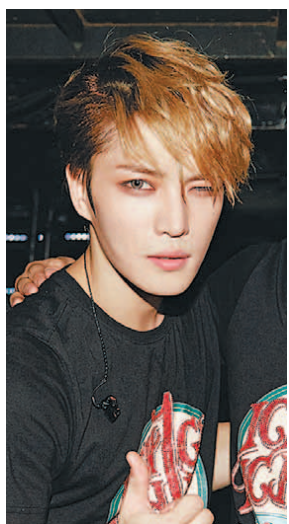
문희준 아내 소울, 딸 출산

‘아이돌 커플’ 문희준과 소울이 부모가 됐다. 소울은 12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역삼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했다. 2월12일 결혼식을 올린 지 3개월 만이다. 문희준 소속사 코엔스타즈 측은 “소울이 2.6kg의 딸을 출산했다. 아이와 산모는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된 소울은 동반한 연예활동 없이 육아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 | 유진한·김대건 기자

김재중 개인 여행방송 해외팬에 한국 알리기

지방 여행지 소개...한류 홍보대사 자처



김재중

그들 JYJ의 김재중이 ‘한류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해 눈길을 끈다. 김재중은 평소 취미인 여행과 요리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한국을 알리는 데 열중하고 있다. 2월 말 제대 후 곧바로 아시아 투어를 나선 그는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라도 조금 더 다양한 나라의 팬들을 만나고자 계획했고, 이를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천하고 있다.

김재중은 ‘홀짝 떠나는 여행’이라는 콘셉트로 국내 지방 곳곳을 여행하고 있다. 최근 자신의 고향인 충남 공주시 여행을 떠나 다양한 지역문화를 알렸다. 김재중이 자영업자 여행을 다니는 모습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공개됐고, 팬들은 “꼭 한번 가보고 싶다”며 각 나라의 언어로 댓글을 남겼다. 김재중의 이 같은 노력에 최근 충남 공주시와 백제문화재단추진위원회는 그를 ‘백제문화제·공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재중은 최근 강원도 동해로 떠난 여행기도 조만간 공개하고, 국내 2~3곳을 더 골라 해외 팬들에게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여행과 함께 그의 ‘먹방’(먹는 방송)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 그의 요리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김재중은 남다른 요리 실력을 바탕으로 ‘먹방’을 잇따라 선보이며 한식을 알리고 있다. 다양한 나라의 팬들이 접속하는 김재중의 라이브 방송은 해외 팬들의 더욱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다.

김재중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시아 투어를 끝내고 더 다양한 나라의 팬들과 만나고 싶다고 했다”며 “취미를 이용한 소소한 방식이 오히려 세계 각국의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팬들과 스킨십...가수들의 색다른 전시회

젝스키스 이어 빅스도 5주년 기념 전시회 스타의 참여 없이 팬과 장기간 교감 장점

그들 제스키스가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서울 마포구에서 ‘엘로 유니버스’란 이름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다. 4월 말부터 한 달간 진행하는 전시회는 이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각종 자료와 무대영상, 멤버 이재진의 그림 등을 선보이고 있다.

그들 빅스는 24일부터 6월4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데뷔 5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 ‘빅스 0524’를 연다. 지난 5년을 추억할 수 있는 의상과 소품, 미공개 사진 및 영상, 지금달기 발매된 앨범과 화려한 아트워크 등이 소개된다.

이처럼 가수들이 전시회로 팬들을 스킨십

을 나누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서 그룹 갓세븐은 3월 ‘갓세븐 더 플라이드 로그 익서비션’으로 1년에 걸쳐 진행된 ‘플라이드 로그’ 3부작 앨범의 콘텐츠와 미공개 영상, 사진 등을 공개했다. 빅뱅도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데뷔 10주년 기념 전시회를 열고 다양한 자료와 기록을 통해 팬들과 교감했다.

가수들이 벌이는 전시회의 목적은 다양하다. 제스키스나 빅뱅, 빅스처럼 특정 연한을 풍성하게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갓세븐처럼 특정 앨범이나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처 보여주지 못한 부분을 소개하는 팬 서비스 차원이기도 하다. 에프엑스는 2015년 4집 ‘포월즈’ 발표에 앞서 일주일간 전시회를 열었다. 새 앨범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의 일환이었다.

전시회는 또 스타가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서도 장기간 팬들과 교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앨범의 프로덕션이나 음반활동 과정에서 제작된 부가콘텐츠 등을 가치 있게 재활용할 수도 있다. 한 번의 기획으로 오랫동안 각 지역을 돌며 문화소의 지역 팬들과도 만날 수 있다. 물론 입장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이 같은 전시회의 시초는 그룹 JYJ의 팬 박람회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팬 미팅과 전시회를 결합한 ‘팬미팅워크’를 개최해 국내의 팬들과 함께했다. 토코쇼, 드레스룸 및 뮤직비디오 세트, 멤버들이 직접 만든 작품, 무대영상, 미공개 사진 및 영상 전시 등 팬들이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꾸며졌다.

JYJ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팬 박람회는 팬들과 JYJ가 보다 가까이에서 스타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로, 팬 서비스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자랑했다.

김원경 기자

서점가 강타한 ‘드라마셀러’, 책과 PPL의 찬란한 만남

뉴스인사이드

인기 드라마 ‘책 구걸 소개=대박’ 공식 협찬금액 평균 8000만~1억원에 달해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임수정이 유아인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하며 마음을 위로한다. 평소 예민함이 극도에 달했던 유아인은 한 구절을 읽으며 편안해 한다.

지난달 22일 방송한 케이블채널 tvN ‘시카고 타자기’의 한 장면이다. 유아인이 임수정의 진심을 알게 된 책은 정화재의 에세이집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다. 이후 방송에서도 해당 구절이 한 차례 더 소개되면서 책에 대한 관심이 치솟았다. 14일 현재 교보문고 등 각종 온라인서점의 베스트셀러 3위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각 서점은 ‘설(임수정)이 세주(유아인)에게 건넨 위로의 책’이라는 문구와 당시 방송 장면을 내세워 홍보 중이다. 이 장면은 드라마 제작사와 출판사 갤러온이 간접광고(PPL) 형태로 계약을 맺고 나왔다. 앞서 tvN 드라마 ‘도깨비’에서 공



“책 만난 드라마, 어떤 홍보 안 부럽다.” 인기 드라마에 책 한권이 소개되면 그 효과가 엄청나다. 이를 ‘드라마 셀러’라 부른다. 사진은 드라마 ‘시카고 타자기’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의 팬으로 등장하는 임수정이 작가 유아인에게 관심을 드러내는 장면. 사진제공 | M

유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읽은 ‘사랑의 물리학’을 포함해 시 101편의 필사책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도 간접광고로 공개됐다. 현재까지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지키고 있고,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측은 전년 대비 14.2%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을 통해 소개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신사의 품격’의 ‘어디선가 나를 찾는 벨이 울리고’, ‘상속자들의’ ‘꼭 같이 사는 것처럼’, ‘별에서 온 그대’의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순위	영화	누적관객	개봉일
1	보안관	2,041,459	05/03
2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2,305,106	05/03
3	에이리언: 커버넌트	770,116	05/09
4	보스 베이비	1,761,267	05/03
5	석조저택 살인사건	238,290	05/09
6	임금님의 사건수첩	1,600,977	04/26
7	목소리의 형태	1,660,355	05/09
8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3,640,126	04/12
9	스머프: 비밀의 숲	414,021	04/28
10	특별시민	1,356,339	04/26